

# 한국어 진술서에서 책임회피 시 나타나는 거짓의 언어·심리적 특징\*

문옥영† 김시업 전우병 김범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본 연구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되게 진술한 한국어 진술서를 토대로 진실한 진술서와 거짓된 진술서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진술서에서 나타나는 언어적·심리적 거짓의 특징들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112명에게 1년간 있었던 본인의 가해경험을 최대한 자세하게 진실 진술서(1차)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주일 후 이들에게 다시 1차 진술서에서 기술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서(2차)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진술서 63쌍을 K-LIW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여 책임회피 시 나타나는 언어의 특징과 심리적 특징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이러한 특징들이 진술서 내에서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책임회피를 위해 거짓된 진술을 할 때 언어변인과 언어중변인, 심리적인 변인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의 증가는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 원인 설명,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의 진술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났고, 이러한 증가는 진술의 전반부나 후반부에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고 추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한국어 진술서, 책임회피, 거짓특징, 거짓 언어심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과 거짓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진실과 거짓이란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즉, 진실하지 않은 것과 거짓은 동의어가 아니며, 거짓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다. 현재 학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거짓에 대한 정의는 Vrij(2000)가 주장한 것으로, 거짓(deception)이란 “1) 화자가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2) 청자에게 믿게 만들기 위해

3) 어떠한 사전 경고 없이 하는 성공적이거나 비성공적인 의도성 있는 시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면 그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법정상황에서 ‘진실한 것’을 탐지해내는 기법이 ‘거짓된 것’을 탐지해내는 기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진실과 거짓 각각을 탐지할 수 있는 별개의 기법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정보가 거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 교신저자: 문옥영,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28번지 E&C벤처드림타워 6차 701호 (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E-mail: iamyeong@naver.com

짓임을 인지하고, 상대를 속이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정보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러한 '거짓말'을 구현해낸다. Ekman (2001)은 거짓말을 하는 방식에 거짓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말하는 왜곡(falsification), 거짓을 말하지는 않지만 고의적으로 어떤 정보를 숨기는 은폐(concealment), 사실 중 일부만을 말하는 반쯤 숨기기(to tell the truth but with a twist), 청자로 하여금 잘못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는 회피(to avoid saying)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화자가 거짓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화자 스스로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는 왜곡 하나 뿐이며, 은폐, 반쯤 숨기기, 회피 등은 청자 스스로 거짓된 추론을 하게 하기위해 청자에게 주도권을 떠넘기는 소극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거짓의 방식과 소극적인 거짓의 방식 모두가 거짓말을 구현해내는 방식이 된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용될 수 없는 거짓말, 즉 범죄성이 있는 거짓말의 경우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도 용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확실히 밝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법적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로 생각된다. 따라서 범죄성이 있는 거짓말을 탐지해내는 것은 법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Vrij (2004)에 따르면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거짓말을 성공적으로 하여 자신의 비밀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거짓말을 하는 화자는 자신의 기억 중 말해도 좋을 부분만을 골라서 말하고, 사건의 핵심을 누락시키거나 은폐시켜야 하며, 자신이 거짓말을 하려 한다는 증거 역시 숨겨야 하며,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모순됨 없이 그럴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말실수를 피해야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사건에 관해 보고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한다(Vrij, Edward, Roberts, & Bull, 2000). 그렇기 때문에 거짓

말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화자에게는 엄청난 인지적 부담을 갖게 한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왜곡하는 대신 은폐, 반쯤 숨기기, 회피 등의 전략을 사용하게 되며, 사건 전반에 걸쳐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서면 진술 뿐 아니라 모든 법정 상황에서 거짓을 판단하는 것의 핵심은 전반적인 사건 중 어느 부분에서 거짓이 나타났는지 판단해내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거짓을 말했는지를 판단해내는 것이다.

### 거짓 진술 시 심리와 언어적 특징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기(Jayne & Buckley, 1999) 때문에, 대부분의 거짓말 탐지기법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불안을 파악하여 거짓의 가능성을 탐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진술에서의 거짓을 탐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김종률(2002)은 답변 내에 책임감이 적게 포함될 수록 그 반응이 촉발하는 불안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안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숨기려 하게 된다. 따라서 거짓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어적, 행동적 변화는 이러한 불안을 줄이고 은폐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나게 된다.

Sapir(1987)는 서면 진술 시 단어의 변화, 그 중에서도 인물, 수송수단, 의사소통, 무기에 대한 단어의 변화는 그 관계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단어의 변화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 거짓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단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어가 변할 경우에 거짓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의 범칙, 즉 처음에 자세하게 소개하였고, 그 소개로 인하여 진술 전반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것일 때는 처음에 언급한 그대로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더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Sapir(1987)는 대명사의 변화 역시 중요한 거짓 지

표라고 보았다. 대명사는 개입, 책임감, 그리고 소유감 등을 의미한다. 대명사를 생략하는 것은 진술인이 자신의 행동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대상과 개입되는 것을 내키지 않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 ‘나’라는 인칭대명사를 생략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 의도나 행동한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나타난다(Sapir, 1987). “나”를 사용해야 할 곳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진술인이 무언가를 숨기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감을 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Adams, 1996). 또한 ‘우리’라는 대명사의 사용은 대인적 관계나 일치성을 나타내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지, 사건 직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 대인관계가 핵심(Adams, 1996)이 되는 유괴사건이나 강간사건의 단서로 중요하다(Smith, 2001). 소유대명사는 물체 또는 대인과의 애착을 나타낸다. 만약 소유대명사가 변화하거나 완전히 중단된다면, 그것은 물건과의 관련 또는 주인의식의 부정을 의미할 수 있는데(Smith, 2001), 그것이 방화나 무기범죄와 관련하여 발생한다면 특히 유의미하다. 또한 ‘이것들(these)’이라는 단어 대신 공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저것(that)’ 또는 ‘저것들(thos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나타내려 한다는 의도를 감지할 수 있다(Adams, 2004). 이러한 대명사의 사용은 진술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다. Adams(1996)는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지칭하는 단어로 ‘내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진술의 어느 순간 아내의 실명을 사용할 경우, 이 시점에 진술인이 자신의 부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김종률(2002) 역시 진술인이 자주 사용하는 명사, 대명사, 동사들을 통해 기준을 설정한 뒤 그것에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이 변화가 나타날 때 거짓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또한 ‘우리’ 등 한국 사회에서 통념상 자주 쓰이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한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구역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면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때 거짓진술을 하고자 하는 진술인은 최대한 자신의 가해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때 진술인은 확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문장을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애매모호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다의성에 대해 Bavelas, Black, Chovil, 및 Mullett(1990)는 다의적인 의사소통이란 모순되고, 애매하고, 불분명하고, 둘러대는 특징을 가진다고 묘사하였다.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축소하거나, 상황 요인에 귀인하거나, 행위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한다. 즉, 글을 작성할 때 여지를 남기거나 의미를 한정하는 문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즉, ‘~것이 아니다.’로 끝나는 가장 일반적인 문장에 비교했을 때 ‘~것은 아니다’, ‘~것만은 아니다’, ‘~는 않는다’, ‘~한 셈이다’ 등의 문장을 사용하여 의미를 축소하고 행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타인과 책임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한정, 회피 또는 축소하려는 경우, ‘~였다면, ~였을 것이다(~였을 지도 모른다)’, ‘물론 ~이지만,~’, ‘~였을 뿐이다(따름이다)’ 등의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글이나 말로 표현된 특정 사건은 사건 전 상황, 사건, 사건 후의 상황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어난 일에 대해 뭉뚱그리거나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등,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간결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진술 내의 사건의 이야기가 균형이 맞지 않고 사건의 핵심보다 주변부의 내용, 즉 사건의 전이나 사건 후의 내용이 많아진다. Driscoll(1994)은 진실한 진술의 경우 사건 전 상황에 대한 진술이 총 진술의 길이의 3분의 1정도이며, 그 이하나 그 이상을 넘어갈 경우 해당 진술이 진실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Sapir(1987)는 진실한 진술에서는 사건의 전 부분에 진술의 첫 20%가 사용되고, 다음 50%는 실제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마지막 30%는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논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균형이 맞지 않는 진술일수록,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Adams와 Jarvis(2006) 역시 진술서 속 거짓의 가장 유의미한 예

측요인으로 서문의 상대적 길이를 들었다. 즉, 진술서의 구조에 대해 연구한 모든 연구자들은 진술의 구조가 불균형하고, 특히 서문의 상대적 길이가 길수록 진술서가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즉, 거짓된 진술인은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건 중의 내용을 생략하고, 사건 자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진술인인 자신에게는 필요한 내용을 사건 전이나 사건 후에 추가시킨다. 따라서 사건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정보들의 양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진술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사건 전 혹은 사건 후의 내용이 많아지게 된다.

### 거짓 진술의 탐지에 대한 선행 연구

법정상황의 서면진술의 거짓탐지에 대해 Adams(2002), Knapp, Hart, 그리고 Dennis(1974), Rabon(1996), Rudacille(1994), 그리고 Sapir(1987) 등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진술서 내 거짓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특징에 대해 Knapp 등(1974)은 확신의 부족(uncertainty), 말을 줄이는 경향성(reticence tendency), 의존성(disassociation with remarks), 부정적 감정(unpleasant), 그리고 모호성(tendency of equivocation)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의 언어적 지표를 주장하였다. Knapp 등은 또한 거짓 진술은 보다 많은 모순이나 실수를 포함하고 특정한 사실에 대한 세부묘사가 적다는 것을 밝혀냈다.

Rabon(1996)은 범죄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은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진실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하거나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점을 과장되고 지나치게 만들어내는(거짓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 시도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Rudacille(1994)은 용의자, 피해자, 목격자 각각의 진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짓지표들에 대해, 즉각적이지 않은 언어적 반응, 특이한 세부사항에 대한 묘사의 부재, 소극적인 목소리, 그리고 현재형 시제의 사용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Adams(2002)는 범죄수사 실무에서 얻은 60건의 성인의 진술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 30건은 조사관들에 의해 진실로 밝혀진 사건이었고, 30건은 거짓으로 밝

혀진 사건의 진술서였다. 독립변인은 진술에서 나타나는 문장의 다의성, 부정, 서론의 길이, 특정한 감각 묘사, 감정, 인용구였고, 종속변인은 진술의 진실 혹은 거짓의 가능성이었다. 연구 결과, 거짓과 다의성, 부정, 서론의 상대적 길이가 정적 관계를 가지며, 진실과 독특한 감각 묘사 간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스라엘의 폴리그래프 수사관 이었던 Sapir(1987)가 거짓 진술을 하는 용의자들에게서 관찰되는 특징을 바탕으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발한 과학적 내용분석(Scientific Content Analysis: 이하 SCAN)은 구두로 얻어진, 또는 서면으로 기술된 진술을 일관되고 구조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진술서의 거짓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SCAN은 조사자 등 다양한 변인으로 인하여 유도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은 진술자 그대로의 진술(Sapir, 2000)에 대해 일관되고 구조적인 방법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기법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진술서 내 거짓가능성을 탐지하는 기법 중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Sapir(2000)는 거짓된 진술인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기억만으로는 보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상상을 가미하여 진술을 만들게 되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늘어놓아 초점을 흐리거나,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진술인의 진술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나 구조의 면에서 일관적이지 못하고 어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진술인의 경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왜곡의 방식보다 실수가 잘 드러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건의 주변부보다는 자신이 사건에 개입된 중심부를 누락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모두 말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진술의 양으로 볼 때 전체의 90%는 진실(Sapir, 2000)하기 때문에, 진술이 전반적으로 진실한 것이냐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진술 중 거짓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Smith, 2001)하다.

거짓탐지 준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한국만의 기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은 SCAN의 효용성에 집중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몇 차례 진행하였고, 수사 현장에서도 SCAN의

효과에 주목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움직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라는 특정한 언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특정 문화권을 중심으로 개발된 SCAN이 과연 영어 아닌 다른 언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또는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어만의 거짓 탐지 도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문화권과 거짓말을 하는 데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한국에서 영어와 언어 구조가 상이한 한국어로 작성된 진술서에 영어로 작성된 진술서의 거짓 구역을 탐지하는 SCAN이 과연 아무런 무리 없이, 모든 준거가 적용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SCAN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두 편 모두에서 SCAN의 거짓탐지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김시업, 김기민, 2010; 이재용, 2007), 타당한 준거의 수가 매우 적고, 두 편의 연구에서 각자 타당하다고 나온 준거들이 일치하지 않았다.

###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

다음으로,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 중 불안한 심리를 포착하고 이를 통해 거짓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한국어의 특징을 개관해보기로 한다. 이하 소개될 한국어 문법 특징은 국립국어연구원(2005)에서 참고하였다.

기본적으로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한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이하 SOV) 어순을 나타내나, 영어는 주어+서술어+목적어(이하 SVO) 어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언어이다. SOV 어순의 언어들 대다수는 주어와 목적어를 형태론적으로 구별하는 반면에 SVO 어순의 언어들은 위상학적으로 구별한다. 이러한 SVO 언어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위상학적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이들 언어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형태론적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성분의 자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즉,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같다. 즉, ‘나는 책을 읽는다.’ 라는 일반 어순이 아닌 ‘나는 읽는다 책을.’, 혹은 ‘책을 나는 읽는다.’ 등 일반 어순에서 어긋나는 어순으로 쓰더라도 어감이 어색할 뿐,

문장의 의미가 변하거나 하지 않는다. 반면에 영어에서 만일 ‘I read a book’과 같은 일반 어순에서 벗어나 ‘A book I read’, ‘A book read I’ 등 다른 어순으로 쓰이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거나 애매모호해지거나 비문 이 된다.

이러한 SOV 언어 구조에서는 단어의 위치보다는 단어에 뒤따르는 조사와 형태소의 사용이 중요해진다. 즉, 한국어에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와 같은 SOV 어순을 나타내는 언어는 대체적으로 후치사가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어에는 후치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있다. 주어, 목적어와 같은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격(case)’은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는 ‘이/가’, ‘을/를’, 등과 같은 조사가 붙음으로써 실현된다. 조사에는 명사, 대명사 등이 문장에서 하는 구실을 나타내 주는 ‘격조사’가 있고 단지 뜻만 덧붙여 주는 ‘보조사’, 명사(대명사)와 명사(대명사)를 이어주는 ‘접속조사’가 있어 한국어는 조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와 더불어 한국어의 어미도 매우 발달하였다. 문장을 끝맺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의 다섯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범주 속에 다시 많은 의미가 있어서 듣는 사람(청자)을 높이는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다양한 어미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으며, 원인, 이유, 조건 등 여러 가지 의미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도 여러 가지 연결어미를 사용한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대신 한국어에는 영어에서 발달된 관계대명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와 같은 어휘 범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화자와 청자 모두가 주어가 무엇인지 또 목적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글에서 같은 성분이 되풀이 되어 그것이 무엇인지 글을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흔히 그 중 하나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처럼 주어나 목적어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만 하면 쓰지 않는 습관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찾아내기 어려운 문장들도 많다. 또한 문장의

요소를 생략하는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너는 언제 왔니?’, ‘나는 조금 전에 왔어.’라는 대화가 오간다면, 한국어에서는 ‘언제 왔어?’, ‘조금 전에.’ 등의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된다. 또한 한국어는 전반적으로 대명사의 사용이 활발하지 않다.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서 다시 받을 때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같은 명사를 그대로 반복하여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한재영(2008)에 따르면 신봉이나 직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직접 쓰는 것 역시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또한 김정우(1993)는 영어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에는 다양한 시제표현이 없다는 점을 한국어의 중요 특징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어나 일본어는 상당한 다의성이 존재하는 언어로 알려져 있다(Inoue & Fodor, 1995). 두 가지 이상으로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통사적 혹은 문법적 다의성(ambiguity)을 가진 문장이라고 한다. 다의성을 지닌 문장은 의미가 모호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 분석 시 다의적이지 않은 문장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며, 만약 문장구조를 틀리게 분석했을 때는 다시 분석하는 과정(reanalysis)을 거쳐 의미를 재해석해야 하는 등 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조명한 등, 2003).

### 한국판 글 내용 분석 프로그램(K-LIWC)

이러한 글 분석의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Pennebaker & King, 1999). 글 속에 존재하는 중요한 주제어들을 바탕으로 글 내용을 판단하는 주제 개념 분석법(thematic content analysis)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의 비율을 바탕으로 글 내용을 판단하는 단어 수 세기(word count strategies) 방식으로 글 분석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단어 수 세기의 대표적인 연구로, Pennebaker와 King(1999)의 연구가 있다. 연구자들은 LIWC(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라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LIWC는 72개의 언어 관련 변인의 비율에 따라 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3000여개의 내용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단어 변인’들과, 단어 길이, 관사, 전치사, 단어 수, 접속사 등의 ‘기능단어

변인’과 ‘대명사 관련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다(Pennebaker, Francis, & Booth, 2001). LIWC는 텍스트 파일 내에서 2,300여개의 단어들 중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지 탐색한 뒤 언어학적 차원(Standard Linguistic Dimension), 심리학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es), 상대성(Relativity), 개인관심사(Personal Concerns)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진 72개의 변인으로 분류된다.

사람들이 쓰는 글에는 사람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이나 대화 상대자가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과 대화상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글의 양상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Goffman, 1959) 사회심리학적 인 요인과 글쓰기의 특징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LIW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글쓰기와 건강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글쓰기와 정신병리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 분류된다. 먼저 글쓰기와 건강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감정적 글쓰기를 한 집단이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집단은 원인과 통찰과 관계된 인지적인 단어(because, hence, insight), 정서적인 단어, 그리고 대명사 관련변인과 문장 당 단어수가 증가한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Pennebaker와 Graybeal(2001)은 감정적인 글쓰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억제되었던 감정적 상처를 꺼내어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비합리적 사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글쓰기와 정신 병리와 관련된 연구에서 Rude와 Gortner, 그리고 Pennebaker(2004)는 우울증 집단이 정상 집단보다 일인칭 단수대명사인 I의 사용빈도가 높지만 we, he, she, they 등의 대명사의 사용빈도는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우울증 집단이 기능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해 정상집단보다 글의 구조가 단순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우울한 사람일수록 주변 상황이나 타인보다는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반추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LIWC를 사용하여 허위진술(deceptive confession)과 진실한 진술(true statement)의 차이를 분석하는 분야의 연구는 Newman, Pennebaker, Berry, 그리고

Richards(2003)가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진실한 진술은 거짓 진술보다 'but', 'without', 'except' 등과 같은 범주를 구별하는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일인칭 대명사의 사용도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LIWC 프로그램을 모태로 한국에서는 이창환과 윤예선(2004)이 한국어 분석 프로그램(K-LIWC: Korea-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을 개발하였다. LIWC와 비교했을 때 K-LIWC의 주요한 차이는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 한국어 품사 태깅 시스템(K-GraCaT: Korean Grammatical Category Tagger)을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포함하여 9품사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47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중의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좌우문맥(left-right context)의 의미-통사 정보를 이용하여 규칙 및 어휘와의 연결 관계를 이용한 휴리스틱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존대어나 체면 관련 단어 변인을 추가하여 총 102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어있다.

K-LIWC는 언어학적 변인과 심리학적 변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언어학적 변인은 언어변인과 언어 중변인으로 구분되는데, 문장, 어절, 형태소 등의 문장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들과 명사, 동사, 형용사 등 한국어의 대표적인 품사들로 구성되어있다. 언어중변인은 각 품사들의 하위구성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명사'라는 언어변인에 대해 '일반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 등으로 세분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심리학적 변인은 크게 심리학적 과정과 자기영역의 두 범주로 구분되어 있고, 심리학적 과정에는 정서, 인지, 감각, 사회 과정이 포함되며, 각각의 범주에 대해 하위변인들이 존재한다. 자기영역에서는 자기활동, 여가활동, 돈·재정적 이슈, 신체적 상태와 기능, 형이상학적 변인의 5가지 범주가 존재하며, 각 범주들에 대해 역시 하위변인들이 존재한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K-LIWC를 통해 진행된 연구들은 상담언어의 분석과 관련된 연구(이은숙, 2005; 이정화, 2009)등 언어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분야와, 자살, 외상경험 등에 대한 주제(박진희, 2009; 박경희, 2006, 김수연, 2005)가 포함되는 언어와 정신 병리

에 대한 분야로 나누어져있으며, 아직까지 허위진술과 진실 진술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행해진 바 없다.

지금까지 거짓말, 특히 거짓 진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변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과, 진술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개관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특징을 개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글 분석 프로그램인 K-LIWC와 선행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Sapir(1987)가 SCAN을 개발하게 된 의도와 연구방법을 참고로 하여, 한국어 진술서를 분석하여 한국어 진술서에서 나타나는 거짓의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한국어 진술분석의 준거를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책임회피를 위해 거짓을 진술한 한국어 진술서에서 나타나는 거짓의 언어적·심리적 특징들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 방법

### 피험자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K대학교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11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부터 26세로, 평균 연령은 22.5세(SD=3.76)이고, 각각 남성 57명, 여성 55명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 112명 모두 본인의 실제 가해 경험에 대해 한 번은 진실하게, 두 번째로 거짓되게 진술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진술서는 총 112쌍이고 진술된 사건의 개수는 125건이었다. 이 중 본 연구에 사용된 진술서는 총 63쌍(남: 35, 여: 28)이며, 진술된 사건의 수는 63건이다. 피험자들이 진술한 사건의 종류는 크게 물질적 가해, 신체적 가해, 정신적 가해, 기타 가해로 구분되며 각 15건, 10건, 25건, 13건으로 구성되었다.

### 절차

본 연구의 진술서는 인터넷프로그램인 웹하드를 통해 작성된 진술서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실험지시문을 제시한 후, 본인의 경험을 충분히 서술

표 1. 피험자들의 성별과 가해종류

성별/가해종류	가해 종류				전체
	물질	신체	정신	기타	
남	10	6	12	6	35
여	5	3	13	7	28
전체	15	10	25	13	63

할 시간(5일)을 주어 진술서를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진술서는 총 2차에 걸쳐 수집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은 지난 1년간 자신이 경험한 일 중, 타인에게 재산, 물질, 정신, 신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입혔던 실제 경험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지시받았다. 이차 진술은 일차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차 진술 시 ‘여러분이 처음 썼던 내용이 공공기관에 알려져서 공식적인 처벌을 받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비난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주시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 하거나 합리화를 하는 등, 책임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처음 썼던 파일을 가지고 위의 지시대로 수정하거나 첨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시를 내렸고, 각 연구 참여자들은 지시문에 따라 자신의 가해경험을 축소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게 진술하였다. 이렇게 한 피험자에게서 1차 진술서와 2차 진술서를 각각 수집하여 총 112쌍(1차 진술서 112부, 2차 진술서 112부)의 진술서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진술서들 중 연구자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았거나, 작성된 내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성의 없이 작성하는 등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게 기술한 진술서 49건을 제외한 63쌍의 진술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제외할 진술서들을 선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진술한 내용이 한 페이지의 1/3 미만(14줄 미만)인 경우.
- ② 1차 진술서와 비교했을 때 2차 진술서에 사건에 대한 왜곡, 첨가, 수정, 은폐 등이 나타나지 않고 1차 진술서와 동일한 2차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 ③ 본인의 가해 경험이 아닌 피해 경험 등 본 연구의 목적과 상관없는 내용을 진술한 경우.

④ 사건의 경위를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히 진술하지 않은 경우.

⑤ 특정한 가해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⑥ 1차 진술서에서 내용을 덧붙이거나 삭제하는 대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2차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 분석 및 평가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술서 상의 언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K-LIW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차로 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어 분석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실험을 개설한 후, 각 개인의 1차 진술서와 2차 진술서들을 \*.txt 파일 형태로 개별 저장하고, 글을 등록한 뒤 중의성 처리(Post Processing System: PPS) 작업을 통해 어절 분석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K-LIW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된 파일은 모두 63쌍, 총 126개이며, 분석 결과 126개의 진술서 각각의 언어변인, 언어중변인, 심리적 변인의 양이 산출되었다.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실 진술서와 거짓 진술서에서 나타나는 언어·심리의 통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진술서 63쌍의 언어변인, 언어중변인, 심리변인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진실한 진술서와 거짓 진술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변인들이 진술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 개인의 1차 진술서와 2차 진술서를 각각 대조하여, 1차 진술서(진실)와 2차 진술서(거짓)를 비교했을 때 2차 진술서(거짓)에서 달라진 부분들, 즉 진실한 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내용을 축소, 은폐, 및 왜



곡하여 달라진 구역들을 모두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거짓구역’의 문장과 단어들의 특징을 K-LIWC의 언어·심리학적 변인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각 변인들이 진술의 전·중·후 중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지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진술의 전·중·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K-LIWC를 통한 분석은 연구자 1인이 실시하였고, 추가적인 내용분석은 본 연구자와 어문학 관련 학사과정 대학생 1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2명의 평가자들은 각각 진술서를 코딩하고 평가자간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평정 시 두 명의 평가자가 각각 거짓구역의 문장과 단어들을 K-LIWC 변인으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각 변인들이 진술의 전·중·후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각각 기록하고 분류한 변인들에 대해 일치도를 확인한 뒤, 일치하지 않는 준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재분류하였고, 조정된 결과를 연구 결과에 사용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Kappa 계수를 산출하여 평가하였으며, Kappa=.668이었다. 일

반적으로 Kappa계수는 .60 이상일 때 신뢰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이재웅, 2007),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의 Kappa계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 결 과

본 분석에서는 수집한 63명의 진술서(63쌍, 총 126개)을 K-LIWC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변인, 언어중변인, 심리적 변인의 양을 산출하여, 진실 진술서와 거짓 진술서에서 나타나는 언어·심리의 통사적 변화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언어변인, 언어중변인, 심리변인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K-LIWC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에 대해 빈도분석, 반복측정 변량분석,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K-LIWC와 SPSS for Windows 12.0 version이 사용되었다.

먼저, K-LIWC 변인 중 언어 변인과 언어 중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3과 같다.

진실 진술서와 책임회피를 위한 거짓 진술서를 비교

표 2. K-LIWC 언어변인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언어변인 변화치		t값
	진술서1 M(SD)	진술서2 M(SD)	
문장1-문장2	41.55(15.03)	51.39(24.57)	-4.74***
어절1-어절2	673.55(198.66)	849.98(340.02)	-5.54***
형태소1-형태소2	1258.32(363.62)	1596.04(630.25)	-5.80***
어절/문장1-어절/문장2	17.23(5.16)	17.46(4.54)	-.78
형태소/문장1-형태소/문장2	32.19(9.35)	32.86(8.48)	-1.36
명사1-명사2	274.55(92.50)	341.22(133.73)	-4.89***
대명사1-대명사2	39.55(16.70)	49.25(26.18)	-4.57***
수사1-수사2	3.51(3.10)	4.36(3.96)	-2.90**
조사1-조사2	223.42(64.59)	281.49(105.89)	-5.78***
동사1-동사2	155.69(44.94)	196.47(80.93)	-5.42***
형용사1-형용사2	33.45(12.69)	45.62(20.76)	-6.01***
관형사1-관형사2	15.89(8.89)	18.15(10.78)	-2.61*
부사1-부사2	43.15(14.36)	56.78(25.06)	-5.64***
감탄사1-감탄사2	1.73(1.96)	2.18(2.42)	-2.61*
어미1-어미2	286.60(81.27)	366.36(147.25)	-5.78***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 K-LIWC 언어 증변인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언어증변인 변화치		t값
	진술서1 M(SD)	진술서2 M(SD)	
일반명사1-일반명사2	240.45(81.52)	301.57(119.43)	-5.08***
고유명사1-고유명사2	9.68(7.83)	11.52(10.58)	-1.46
일반 고유명사1-일반 고유명사2	3.57(2.14)	4.27(2.87)	-2.85
의존명사1-의존명사2	12.61(5.27)	16.48(7.04)	-5.34***
지시대명사1-지시대명사2	6.96(4.56)	8.82(6.84)	-3.10**
인칭대명사1-인칭대명사2	32.39(14.72)	40.57(22.71)	-4.88***
일인칭1-일인칭2	12.00(6.30)	14.70(8.95)	-3.20**
이인칭1-이인칭2	.38(.93)	.57(1.21)	-2.11*
삼인칭1-삼인칭2	11.41(8.19)	14.28(11.01)	-4.34***
일인칭복수1-일인칭복수2	2.93(3.56)	3.30(4.19)	-1.26
이인칭복수1-이인칭복수2	.23(.73)	.28(.77)	-1.137
삼인칭복수1-삼인칭복수2	.18(.76)	.21(.73)	-.57
양수사1-양수사2	3.46(3.02)	4.38(3.92)	-3.30**
조사1-조사2	201.50(58.49)	252.68(94.17)	-5.76***
인용조사1-인용조사2	7.05(4.89)	9.93(6.81)	-5.20***
'이다'조사1-'이다'조사2	13.96(7.92)	18.73(11.01)	-6.06***
동사1-동사2	154.57(45.09)	196.59(80.29)	-5.90***
자동사1-자동사2	.27(.55)	.48(.78)	-3.15***
형용사1-형용사2	33.21(12.70)	45.54(20.61)	-6.25***
관형사1-관형사2	2.30(1.67)	2.95(2.05)	-3.05**
수관형사1-수관형사2	13.55(8.33)	15.30(9.91)	-2.27
일반부사1-일반부사2	42.91(14.34)	56.84(24.84)	-6.01***
감탄사1-감탄사2	1.71(1.95)	2.16(2.41)	-2.61*
접두사1-접두사2	.57(1.04)	.73(1.45)	-1.41
접미사1-접미사2	.52(1.0)	.48(.91)	.81
어미1-어미2	236.52(66.03)	306.02(118.79)	-6.43***
선어말어미1-선어말어미2	48.00(21.15)	60.32(30.83)	-4.71***
영어1-영어2	2.02(5.43)	1.77(3.89)	.41
명사추정의래어1-명사추정의래어2	10.18(10.59)	11.63(10.24)	-1.32

\*  $p < .05$ , \*\*  $p < .01$ , \*\*\*  $p < .001$ 

한 결과 거짓진술서에서 대부분의 언어변인들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거짓진술서에서 문장, 어절,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어미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거짓진술서에서 일반명사, 일반 고유명사, 의존명사, 지시대

명사, 인칭대명사,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양수사, 조사, 인용조사, '이다'조사, 동사, 자동사, 형용사, 관형사, 수관형사, 일반부사, 감탄사, 어미, 선어말어미 등의 언어 증변인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진실한 진술서와 비교했을 때 거짓 진술서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더 많은 문장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어절, 형태소와 명사, 대명사, 동사 등의 품사와 같은 문장의 구성요소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언어변인과 다양한 언어 중변인들이 증가하였다. 다만, 고유명사, 일인칭·이인칭·삼인칭 복수, 접두사, 접미사, 영어, 명사추정의래어 변인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K-LIWC 변인 중 심리학적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진실 진술서와 책임회피를 위한 거짓 진술서를 비교한 결과, 진실한 진술서와 비교했을 때 거짓 진술서에서 ‘심리학적 과정’에 속하는 ‘감정/정서’, ‘인지적 과정’, ‘감각/지각과정’, ‘사회적 과정’에 속하는 모든 변인들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영역’에서, ‘자기활동’의 하위 변인 중 ‘학교’와 ‘성취’, ‘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여가활동’과 ‘돈·재정적 이슈’의 하위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 상태와 기능’에서는 ‘몸 상태/증상’과 ‘식사/음주/다이어트’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형이상학적 변인’에서는 ‘죽음’ 변인만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성별과 가해의 종류가 준거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각각에 대해 t검증과 일원배치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가해의 종류는 준거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K-LIWC 분석 결과 진실 진술서와 거짓 진술서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된 변인들이 전체 진술서 중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진술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언어적 변인에서는 언어변인과 언어중변인 두 범주에서 대부분의 변인들이 증가하였다. 즉, 본 연구의 지시사항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거짓되게 진술한 진술서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한 문장을 삽입하게 됨으로써 문장과 어절,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변인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문장의 증가로 인해 언어변인들의 대부분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중 대표적으로 거짓진술 시 사건 전·중·후의 문장( $F(1, 61) = 9.767, p < .001$ ), 어절( $F(1, 61) = 14.930, p < .001$ ), 형태소( $F(1, 61) = 14.353, p < .001$ )에서 변화가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렇게 잘못을 축소하기 위한 문장들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보다는 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건 전’ 부분에 추가되거나, 사건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 ‘사건 후’ 부분에 추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사건 전’, ‘사건 중’, ‘사건 후’가 각각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사건 전’의 증가량이 높았다.

다만, 고유명사, 일인칭복수, 이인칭복수, 삼인칭복수, 접두사, 접미사, 영어, 명사추정의래어 변인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고유명사, 영어, 명사추정의래어는 모두 명사에 속하는 변인들이고, 특히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강경준, 2004). 즉, 고유명사나 영어단어, 명사추정의래어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새롭게 등장해야 하는데,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자신의 가해경험에 대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을 수정하거나 자신의 책임회피를 위한 문장들을 덧붙이는 형태로 거짓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 이와 같은 단어들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일반명사나 대명사는 지칭할 대상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접두사와 접미사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 역시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접두사와 접미사는 모두 접사에 해당하며, 접사는 다른 단어에 붙어서 뜻을 풍부하게 해주거나 품사를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접사는 의미를 덧붙일 때 사용하며, 이러한 접사가 붙어서 단어(파생어)가 생성되는 경우, 접사들은 독립성이 없어서 관형사나 부사와 같이 두루 쓰이지 못하고 국한된 좁은 범위 안에서 몇 개 단어에 첨가될 뿐이며, 특히 체언이나 용언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김순임, 1988). 즉, 책임회피를 위해 사용된 명사나 대명사 등의 체언과 동사 등의 용언의 변화 양상이 이러한 접사를 덧붙인 파생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단어 자체를 변경하거나 대명사의 경우 그 대명사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4. K-LIWC 심리학적 변인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심리학적변인 변화치		t값
	진술서1 M(SD)	진술서2 M(SD)	
감정/정서1-감정/정서2	49.03(20.7)	65.31(36.52)	-5.06***
긍정정서1-긍정정서2	12.65(8.13)	16.61(12.41)	-3.52***
긍정느낌1-긍정느낌2	7.90(6.06)	10.50(9.22)	-3.06**
낙천성/활동성1-낙천성/활동성2	3.03(2.45)	3.74(3.15)	-2.76**
부정정서1-부정정서2	29.15(13.56)	38.23(22.60)	-4.94***
불안1-불안2	3.42(2.96)	4.23(3.82)	-2.92**
화1-화2	9.08(6.67)	11.31(10.33)	-2.71**
슬픔/우울1-슬픔/우울2	4.65(3.16)	6.40(4.09)	-4.25***
인지적 과정1-인지적 과정2	50.85(19.44)	70.66(31.29)	-7.37***
원인1-원인2	4.89(3.77)	6.77(4.95)	-4.16***
사고1-사고2	14.06(8.50)	19.40(10.60)	-5.56***
기대1-기대2	14.71(7.23)	21.47(11.53)	-7.69***
제한1-제한2	10.03(4.47)	13.73(7.13)	-5.81***
추측1-추측2	14.26(6.72)	20.68(10.47)	-7.32***
확신1-확신2	16.56(7.54)	22.81(13.49)	-5.19***
감각/지각과정1-감각/지각과정2	32.98(12.64)	43.02(21.21)	-4.87***
사회적 과정1-사회적 과정2	76.18(36.67)	96.00(57.02)	-5.14***
체면1-체면2	3.56(2.48)	5.00(3.44)	-3.79***
의사소통1-의사소통2	26.47(14.62)	33.50(23.46)	-4.12***
타인참조1-타인참조2	18.02(9.32)	22.34(12.81)	-5.25***
또래(친구)1-또래(친구)2	12.37(10.63)	15.76(14.53)	-4.68***
가족1-가족2	7.37(12.10)	8.84(14.59)	-2.91**
인간1-인간2	7.47(6.62)	10.08(10.28)	-3.34***
자기활동1-자기활동2	28.35(20.15)	33.84(24.59)	-3.43***
학교1-학교2	19.68(17.62)	22.74(21.07)	-4.05***
직장일1-직장일2	6.69(10.15)	7.44(9.48)	-.39
성취1-성취2	5.21(4.21)	6.79(4.61)	-2.97**
여가활동1-여가활동2	14.06(11.88)	16.03(12.21)	-1.50
집1-집2	4.81(5.01)	5.50(5.64)	-2.27*
운동1-운동2	.61(1.33)	.71(1.75)	-.90
TV/영화1-TV/영화2	.76(2.08)	1.00(2.61)	-1.74
음악1-음악2	1.31(5.67)	1.52(6.55)	-1.09
돈/재정이슈1-돈/재정이슈2	3.98(5.02)	4.81(5.72)	-1.83
신체상태/기능1-신체상태/기능2	22.13(11.76)	25.69(13.89)	-2.80**
몸 상태/증상1-몸 상태/증상2	13.24(8.45)	15.18(9.97)	-2.68**
성관련1-성관련2	.69(1.32)	1.03(2.25)	-2.25
식사/음주/다이어트1-식사/음주/다이어트2	9.48(7.73)	1.90(9.24)	-3.16**
수면/꿈1-수면/꿈2	3.60(2.91)	4.37(3.43)	-2.24
형이상학적 이슈1-형이상학적 이슈2	4.61(4.09)	5.79(4.74)	-3.71***
죽음1-죽음2	2.21(2.00)	2.87(2.39)	-3.27**
종교1-종교2	2.08(3.16)	2.47(3.31)	-1.57
속어1-속어2	1.55(1.42)	1.63(1.44)	.15
맹세어절1-맹세어절2	1.19(1.23)	1.29(1.32)	-.92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거짓진술시 사건 전·중·후에서 문장, 어절, 형태소의 변화량

		M(SD)	F값
문장	사건 전	5.51 <sup>c</sup> (9.32)	9.76***
	사건 중	.80 <sup>a</sup> (1.35)	
	사건 후	2.58 <sup>b</sup> (4.36)	
어절	사건 전	88.80 <sup>c</sup> (143.93)	14.93***
	사건 중	8.89 <sup>a</sup> (12.95)	
	사건 후	56.21 <sup>b</sup> (67.32)	
형태소	사건 전	129.12 <sup>c</sup> (263.93)	14.35***
	사건 중	27.45 <sup>a</sup> (38.31)	
	사건 후	97.46 <sup>b</sup> (123.45)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으로 심리학 변인에서는 먼저,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에서는 ‘감정/정서’(F(1, 61)= 4.855,  $p < .01$ ), ‘낙천성/활동성’(F(1, 61)= 4.494,  $p < .05$ ), ‘부정정서’(F(1, 61)= 2.336,  $p < .05$ ), ‘화’(F(1, 61)= 4.508,  $p < .01$ ), ‘슬픔/우울’(F(1, 61)= 2.459,  $p < .05$ ) 변인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사건이 일어난 후의 진술에서 증가하였다(표 6 참조).

이러한 진술의 증가는 진술의 전반부에서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 위해, ‘하지만 나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싶었고...(생략)’, ‘내 속도 안 물어보는 친구에게 속상해서’,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함께할 생각이 있어서 이후에 벌여줄 상황은 생각하지 않았다’ 등의 진술을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증가하였다. 또한, ‘그 일이 있고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내 잘못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다’, ‘그렇게 사이가 멀어졌고, 아직까지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슬프기도 하다.’ 등의 문장과 단어들로 나타났다. 즉, 책임회피를 위한 거짓 진술에서 진술 후반부에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진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감정관련 변인들이 증가하였다. 특히, 전반부에서 증가한 진술에는 ‘낙천성/활동성’ 변인에 속하는 긍정감정단어의 증가가 주로 나타났다면, 진술의 후반부에서 증가한 진술에는 ‘슬픔’, ‘화가 난다’ 등의 부정감정단어들이 주로 나타났다.

표 6. 거짓진술시 사건 전·중·후에서 ‘감정/정서적 과정 변인’의 변화량

		M(SD)	F값
감정/정서	사건 전	4.01 <sup>a</sup> (12.82)	4.85**
	사건 중	3.20 <sup>a</sup> (4.91)	
	사건 후	8.80 <sup>b</sup> (7.36)	
낙천성/활동성	사건 전	.44 <sup>b</sup> (1.11)	4.49*
	사건 중	.06 <sup>a</sup> (.16)	
	사건 후	.13 <sup>a</sup> (.32)	
부정정서	사건 전	2.36 <sup>a</sup> (5.91)	2.33*
	사건 중	1.82 <sup>a</sup> (2.95)	
	사건 후	4.63 <sup>b</sup> (5.91)	
화	사건 전	.65 <sup>ab</sup> (1.58)	4.50**
	사건 중	.20 <sup>a</sup> (.49)	
	사건 후	1.34 <sup>b</sup> (3.27)	
슬픔	사건 전	.62 <sup>ab</sup> (.97)	2.45*
	사건 중	.32 <sup>a</sup> (.50)	
	사건 후	1.65 <sup>b</sup> (1.03)	

\*  $p < .05$ , \*\*  $p < .01$

다음으로, ‘인지적인 과정’에서는 ‘인지적 과정’(F(1, 61)= 24.010,  $p < .001$ ), ‘원인’(F(1, 61)= 8.744,  $p < .001$ ), ‘사고’(F(1, 61)= 15.839,  $p < .001$ ), ‘기대’(F(1, 61)= 22.856,  $p < .001$ ), ‘제한’(F(1, 61)= 3.934,  $p < .05$ ), ‘추측’(F(1, 61)= 8.214,  $p < .001$ ), ‘확신’(F(1, 61)= 11.783,  $p < .001$ ) 변인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은 ‘사건 전(진술 전반부)’과 ‘사건 후 부분(진술 후반부)’에 이유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진술을 덧붙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단어들의 빈도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사건 전’에서 더 많은 증가가 나타났다(표 7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인과 관련된 진술은 ‘사건 전’에서 더 많은 증가가 나타났다. 사고에 관련된 진술은 ‘사건 전’과 ‘사건 후’에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를 신임하는 사장의 일손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생략)’, ‘~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등의 원인과 관련된 진술은 ‘사건 전’에서 더 많은 증가가 나타났다. ‘~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상황을 이해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의 사고에 관련된 진술은 ‘사건 전’과 ‘사건 후’에 증가하였다.

표 7. 거짓진술시 사건 전·중·후에서 ‘인지적인 과정 변인’의 변화량

		M(SD)	F값
인지적 과정	사건 전	7.88 <sup>c</sup> (12.27)	
	사건 중	1.98 <sup>a</sup> (2.04)	24.01***
	사건 후	6.94 <sup>b</sup> (6.13)	
원인	사건 전	1.13 <sup>b</sup> (1.93)	
	사건 중	.19 <sup>a</sup> (.32)	8.74***
	사건 후	.57 <sup>a</sup> (.96)	
사고	사건 전	2.14 <sup>b</sup> (2.82)	
	사건 중	.16 <sup>a</sup> (.21)	15.83***
	사건 후	2.67 <sup>b</sup> (3.53)	
기대	사건 전	1.72 <sup>b</sup> (3.62)	
	사건 중	.68 <sup>a</sup> (.65)	22.85***
	사건 후	4.37 <sup>c</sup> (2.30)	
제한	사건 전	1.48 <sup>b</sup> (1.95)	
	사건 중	.74 <sup>a</sup> (.97)	3.93*
	사건 후	1.48 <sup>b</sup> (1.95)	
추측	사건 전	2.89 <sup>b</sup> (2.86)	
	사건 중	1.28 <sup>a</sup> (1.27)	8.21***
	사건 후	2.25 <sup>b</sup> (2.22)	
확신	사건 전	1.75 <sup>b</sup> (5.52)	
	사건 중	.62 <sup>a</sup> (.92)	11.78***
	사건 후	2.87 <sup>c</sup> (2.76)	

\*  $p < .05$ , \*\*  $p < .01$ , \*\*\*  $p < .001$ 

이러한 원인과 사고에 대한 문장의 도입부에는 ‘사실’, ‘솔직히’, ‘오히려’, ‘하지만’, ‘그런데’, ‘그러나’ 등의 단어가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났다. 기대와 관련된 문장들은 주로 사건의 후반부에 증가하였다.

제한과 관련된 단어들은 ‘다만’, ‘오직’, ‘단지’로, 이러한 단어가 나타난 문장들은 대부분 ‘(타인이)~였다면, ~였을 것이다(~였을 지도 모른다)’, ‘물론 ~이지만, ~’, ‘~였을 뿐이다(따름이다)’ 등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사건 전’과 ‘사건 후’에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장이 등장했을 때는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타인과 책임을 나누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8. 거짓진술시 사건 전·중·후에서 ‘감각/지각과정 변인’의 변화량

		M(SD)	F값
감각/지각과정	사건 전	2.52 <sup>a</sup> (5.82)	
	사건 중	2.01 <sup>a</sup> (2.91)	3.26*
	사건 후	5.71 <sup>b</sup> (5.55)	

\*  $p < .05$ 

‘아마도’, ‘왠지’ 등의 추측과 관련된 단어들은 주로 ‘이건 버려진 걸지도 모를 책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에는 찾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거 같았다.’ ‘그 사람도 놀라서 피하다가 내차에 박았던 것일 것이다.’ 등의 추측과 관련된 진술과 함께 증가하였고, ‘사건 전’과 ‘사건 후’에서 증가하였다. 이렇게 추측과 관련된 단어가 나타난 문장들에서는 상황이나 피해자의 생각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측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확신과 관련된 단어들은 주로 ‘사건 후’에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감각/지각과정’ 변인( $F(1, 61) = 3.268, p < .05$ ) 역시 증가하였다. ‘감각/지각과정’에는 어떤 상황이나 자극을 감각/지각하는 과정과 관련된 단어나 서술어가 포함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진술 후반부에 덧붙인 진술에서 많이 나타났다.

‘사회적 과정’에서는 ‘사회적 과정’( $F(1, 61) = 5.606, p < .01$ )과 ‘체면’( $F(1, 61) = 5.754, p < .01$ ) 변인이 증가하였다. ‘사회적 과정’에 속하는 단어들은 사후검증 결과 사건 전과 사건 후에서 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9 참조). 이러한 변인은 ‘저는 분명 서로 마음에 상처받을 일 없이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왜 혼자만 빠지려 하느냐, 개인행동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 저는 친구를 타일렸습니다.’ 등의 문장이 증가하면서 증가하였다. 이는 진실한 진술을 할 때보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언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과정’ 변인은 사건 후에 주로 증가하였다.

다만, 체면을 차리다, 체면치레와 같은 ‘체면’과 관련

표 9. 거짓진술시 사건 전·중·후에서 '사회적 과정 변인'의 변화량

		<i>M(SD)</i>	<i>F</i> 값
사회적 과정	사건 전	5.95 <sup>a</sup> (8.48)	5.60**
	사건 중	3.96 <sup>a</sup> (5.65)	
	사건 후	9.81 <sup>b</sup> (14.14)	
체면	사건 전	.57 <sup>b</sup> (1.04)	5.75**
	사건 중	.14 <sup>a</sup> (.262)	
	사건 후	.72 <sup>b</sup> (1.31)	

\*  $p < .05$ , \*\*  $p < .01$ 

표 10. 거짓진술시 사건 전·중·후에서 '신체상태/기능 변인'의 변화량

		<i>M(SD)</i>	<i>F</i> 값
식사/음주/ 다이어트	사건 전	.97 <sup>b</sup> (2.16)	3.85*
	사건 중	.24 <sup>a</sup> (.54)	
	사건 후	1.21 <sup>b</sup> (2.70)	

\*  $p < .05$ , \*\*  $p < .01$ , \*\*\*  $p < .001$ 

된 단어들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체면' 변인에 해당하는 '차리다' 등과 같은 단어가 '그 이후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다' 등과 같은 문장의 증가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표 10에 나타나 있듯이 '신체상태/기능' 범주에 속하는 변인 중 '식사/음주/다이어트'( $F(1, 61) = 3.851, p < .05$ )가 증가하였고, 사후검증 결과 '사건 전'과 '사건 후'가 같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자신의 가해 행동의 원인을 '술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그날 따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너무 피곤해서 술이 잘 받지 않아 많이 취했다.', '만취한 상태라서...(생략)' 등의 진술을 사건 전과 후에 덧붙였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논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자신의 가해경험에 대해 진실하게 진술한 1차 진술서와, 가해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거짓 되게 진술한 2차 진술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진술서에서 나타나는 거짓의 언

어적·심리적 특징들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K대학교에서 심리학입문 수업을 듣는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가해경험을 솔직하게 진술하게 한 1차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 1차 진술서를 토대로 하여 자신의 가해경험을 축소하고 합리화시켜 최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하게 한 2차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한 쌍의 진술서 112쌍 중 연구의 목적에 맞는 63쌍의 진술서들을 K-LIW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여 언어적 변인에 속하는 단어 수와 심리적 변인에 해당하는 단어 수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1차 진술서와 2차 진술서의 단어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들을 대상으로 진실한 진술서와 비교했을 때 거짓 진술서에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어 진술서에서 나타나는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 진술 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1차 진술서에 비교했을 때 2차 진술서, 즉 책임회피를 위한 거짓을 포함한 거짓 진술에서 언어적·심리적인 변인들이 모두 증가하였다. 먼저, 언어적 변인 중 거짓진술 시 문장, 어절, 형태소가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어미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언어적 중변인에서 거짓진술 시 일반명사, 일반 고유명사, 의존명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이인칭복수, 양수사, 조사, 인용조사, '이다'조사, 동사, 자동사, 형용사, 관형사, 수관형사, 일반 부사, 감탄사, 어미, 선어말어미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변인에서는 거짓진술 시 '감정/정서', '긍정정서', '긍정느낌', '낙천성/활동성', '부정정서', '불안', '화', '슬픔/우울', '인지적 과정', '원인', '사고', '기대', '제한', '추측', '확신', '감각/지각과정', '사회적 과정', '체면', '의사소통', '타인참조', '또래(친구)', '가족', '인간', '자기활동', '학교', '성취', '집', '신체상태/기능', '몸 상태/증상', '식사/음주/다이어트', '형이상학적 이슈', '죽음' 변인들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진실한 진술서와 비교했을 때 거짓 진술서에서 추가·삭제 등 달라진 부분에 대해 유의한 변

인들이 진술의 어느 구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거짓되게 진술한 2차 진술서를 작성할 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모르게’ 등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장과,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는 문장, ‘나도 잘한 건 없지만 그건 그 사람 탓이 컸다.’, ‘평상시에 오죽 나를 괴롭혔으면 내가 그랬겠는가.’ 등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문장, 그 외 쌍방과실 시 본인의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문장들을 삽입함으로써 문장과 어절,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변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장들은 대부분 사건의 핵심부에 추가되기보다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 전’ 부분에 추가되거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사건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후’에 추가되었다.

언어 중변인에서는 고유명사, 일인칭복수, 삼인칭복수, 접두사, 접미사, 영어, 명사추정의래어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이 모두 증가하였다. 이렇게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변인들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대상을 추가할 때 사용하거나, 과생어를 만들어서 의미를 추가시키는 변인들인데, 거짓 진술을 할 때는 있던 이미 등장했던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나 서술어를 바꾸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의미를 확대시키는 이러한 변인들의 사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인 변인 중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에 속하는 감정관련 단어들은 진술의 전반부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의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진술을 추가시키면서 증가하였다. ‘인지적인 과정’에 속하는 인지관련 단어들 역시, 사건 전이나 사건 후 부분에 이어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진술을 추가함으로써 증가하였다. 특히, 제한과 추측 변인에 속하는 단어들 뒤에는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타인과 책임을 나누려는 문장들과, 상황이나 피해자의 생각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측

하는 문장들이 등장하였다.

‘감각/지각과정’ 변인과 ‘사회적 과정’ 변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진술 후반부에 덧붙인 진술에서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신체상태/기능’ 변인 중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실수를 하였다’는 진술을 강조함으로써 ‘식사/음주/다이어트’ 변인이 사건 전과 사건 후에 증가하였다. 또한 기타 내용분석 결과, 자기 잘못을 축소하거나, 사건의 중심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자신의 나쁜 의도를 축소/삭제하는 등 ‘사건 중’에 해당하는 진술이 감소함으로써 진술 전체적으로 사건 전과 후의 진술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책임회피를 위해 거짓된 진술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단어와 문장 수가 증가하며, 이러한 문장은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거나, 책임의 소재를 타인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술의 전반부나 후반부에 증가하였다. 특히, 진술의 전반부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나 사건이 그렇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진술이 증가하며, 긍정적인 감정단어와 인지과정에 속하는 단어들이 증가하였다. 진술의 후반부에는 보다 적극적인 책임회피성 문장들이 추가되었으며, 부정적인 감정 단어와 원인파 사고, 기대, 확신 등 인지과정과 관련된 단어들이 증가하였다. 이는 거짓된 진술 시 사건의 핵심보다 주변부의 내용, 즉 사건의 전이나 사건 후의 내용이 많아진다는 기존 연구결과들(Adams & Jarvis, 2006; Driscoll, 1994; Rabon & Rudacille, 1987; Rudacille, 1994, Sapir, 1987)과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진실한 진술이 허위 진술보다 의미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고 자기 지향적인 진술을 많이 사용한다는 Newman 등(2003)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거짓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제한된 실험상의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축소시키거나 생략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과 태도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진술을 덧붙였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책임 회피’라는 지시사항의 차이 여부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즉, 수사 현장에서 거짓 진술을 할 때 사람들은 사건자체를 축소하거나 자신이 사건에 연루된 정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거짓진술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본 연구에서도 사건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진술이 감소하고, 대신 사건이 그렇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진술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문장이 증가하여 진술의 전·중·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K-LIWC를 통해 단어의 변화치를 분석하였을 때는 기존 1차 진술서에서 달라진 특징, 즉 1차 진술서에서 나타난 단어가 2차 진술서에서 어떻게 추가, 변형, 혹은 삭제되었는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차 진술서와 2차 진술서 각각에서 K-LIWC 변인에 속하는 단어들의 개수만 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단어수준의 양적인 분석으로만 거짓진술의 언어·심리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는 문장,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문장들에서 증가한 ‘원인’, ‘사고’, ‘기대’, ‘확신’, ‘제한’, ‘추측’ 등의 ‘인지적인 과정’ 변인들은 주로 가해 당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거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타인과 책임을 나누려는 문장들과, 상황이나 피해자의 생각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측하는 문장들과 함께 등장하였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의 정도를 한정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진술내용에 대한 확신을 경감하고 의미를 뭉뚱그리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의적인 영어 단어들에 대해 외국의 선행연구자들은 ‘아마도(maybe)’, ‘그건 아마 ~일 것이다(it might be)’, ‘종류의(kind of)’, ‘대략(around), 아마 ~일 것이다(might), 어떤(something), 추측하자면, 만약 ~라면(suppose), ~생각에는(guess), 아마도(probably), 어떤 것(somewhat), 생각에는(think), 뭐든지, 무엇이건 간에(whatever) 등 여러 개의 단어들을 제시하였다(Adams, 2002; Wade, 1993; Weintraub, 1989; Wiener & Mehrabian, 1968). 이러한 다의적인 단어들이 한국어에서는 단어 뿐 아니라 조사와 서술어 등에서 다의성을 띄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어 진술서 내

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의 정도를 한정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진술내용에 대한 확신을 경감하고 의미를 뭉뚱그리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의적인 단어들은 ‘가끔’, ‘이런 저런’, ‘거의’, ‘다만’, ‘단지’, ‘약간’, ‘한 ~정도’, ‘어느 정도’, ‘~은/는 아니다’, ‘~을지도 모른다’, ‘~였던 것 같다(~였던 듯 하다)’, ‘~것만은 아니다’, ‘~은/는 않는다’, ‘~한 셈이다’ 등이 있다. 또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타인과 책임을 나누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문장구조는 ‘(타인이)~였다면, ~였을 것이다(~였을 지도 모른다)’, ‘물론 ~이지만,~’, ‘~였을 뿐이다(따름이다)’ 등이 있다. 이런 단어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부분이 거짓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조사나 형태소의 사용에 따라 진술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과 숨기고자 하는 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책임 회피를 위한 다의적인 단어들이 실제 진술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한국어 진술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짓준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다의적인 단어들이 진술의 어느 한 구역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서 해당 구역의 문장과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경우에도 거짓의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김중률(2010)은 진술 시 진술인이 정보를 의식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부분에서 말실수, 머뭇거림, 말 늘어짐, 호칭 등 단어의 변화, 불필요한 어구 사용, 동어반복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으며, Adams(2002)는 진술서 내 거짓을 탐지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문장의 다의성을 들었다. 뜻과 이해가 명료한 문장 대신 이와 같은 문장을 사용했을 때 거짓으로 진술한 진술인은 나중에 자신의 책임이 밝혀졌을 때 회피하고 변명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술의 어느 특정 부분에서 동어 반복, 동일 어구 반복, 비문, 버벅거림, 문장 내용간의 모순, 문장 내용 내의 모순 등의 특징이 나타날 때 문장의 모호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진술 전체 중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이 사용되는 부분 등이 부자연스럽게 나타나거나, 문장 내 혹은 문장 간 의미가 모순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거짓 정보가 포함돼

있거나 정보의 은폐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는 특히 상당한 다의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Inoue & Fodor, 1995)이기 때문에, 한국어 진술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짓의 특징 중 문장의 모호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역시 추후 연구에서 한국어 진술서만의 거짓준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절차와 결과의 해석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K-LIWC는 진술서 내에 존재하는 단어를 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기에 진술서 전체 내용의 흐름과 문맥의 의미, 그리고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며, 정서단어나 인지단어의 뜻도 평가하지 못한다. 또한, 언어·심리학적 내용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부 단어가 존재(이정화, 2009)하며,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관련된 심리적 과정이나 기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추후 K-LIWC를 이용한 연구를 할 때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이 수사 실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들로, 사건의 심각성이 낮아 처벌 회피에 대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진술서를 받는 상황이 수사 실무와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 곧바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즉, 추후 연구 시 수사 실무 현장과 흡사한 상황에서 얻어진 진술서나 실무 현장에서 진술서를 획득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더 심화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책임회피를 위해 거짓진술을 할 경우 나타나는 거짓의 언어·심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대부분의 언어변인 증가와 감정, 인지 등의 심리변인은 진실한 진술과 거짓된 진술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는 책임회피를 위해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어떤 글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났다고 하여 그 글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거짓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략이 존재하며, 그 중 하나의 방략이 책임회피를 함으로써 거짓말을 구현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거짓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기에는 비약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경준 (2004).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1. 언어 I·한국 문학·논술. 서울: 범한.
- 국립국어연구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수연 (2005).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과 에세이 작성 처치가 우울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순임 (1988). 국어 접두사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시엽, 김기민 (2010). 과학적 내용분석(SCAN)의 타당성: SCAN의 준거가 진술서 내 거짓 구역을 탐지하는 정확성을 근거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203-220.
- 김정우(1993). 번역문에 나타난 국어의 모습. 국립국어연구원: 국어문화학교, 37-54.
- 김종률 (2002). 수사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종률 (2010). 진술분석. 서울: 학지사.
- 박경희 (2006). 외상경험글쓰기의 치료적 효과와 기제: 가정폭력피해여성들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 박진희 (2009). 상담자원봉사자의 자살관련 사고 및 태도의 특징.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은숙 (2005). 글쓰기를 통한 자기개방이 신체화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 모호성을 중재변인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재웅(2007). 목격자 진술에 대한 SCAN(Scientific Content Analysis) 기법의 타당도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이정화 (2007). K-LIWC 글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상담자-내담자 언어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9(5), 2545-2567.
- 이정화 (2009). K-LIWC를 활용한 상담 프로토콜의 언어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창환, 윤애선 (2004). 한국어 분석 프로그램 (K-LIWC)의 한국어적 특성, 한국인지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지능의 이해와 응용], 한국인지과학회, 118-125.
- 조명한 외 공저 (2003). 언어심리학. 서울: 학지사.
- 한재영 (2008). 한국어 문법교육. 파주: 태학사.
- Adams, S. (1996). Statement analysis: What do suspects' words really reveal?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October, 12-20.
- Adams, S. (2002). *Communication under stress: Indicators of veracity and deception in written narrative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Adams, S. & Jarvis, J. P. (2004). Are you telling me the truth? Indicators of veracity in written statements.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October, 7-12.
- Adams, S. & Jarvis, J. P. (2006). Indicators of veracity and deception: an analysis of written statements made to police. *Speech, Language and the Law*, 13(1), 1-22.
- Bavelas, J. B., Black, A., Chovil, N., & Mullett, J. (1990). *Equivocal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 Driscoll, L. N. (1994). A Validity assessment of written statements from suspects in criminal investigations using the scan technique. *Police Studies*, 17(4), 77-88.
- Ekman, P. (2001). *Telling lies: Clues to deceit in the marketplace, politics and marriage*. New York: W. W. Norton.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London: Penguin.
- Inoue, A., & Fodor, J. (1995). Information-paced parsing of Japanese. In R. Mazuka, & N. Nagai (Eds.), *Japanese sentence processing*(pp. 9-63). Hillsdale, NJ: Erlbaum.
- Jayne, B. C., & Buckley, J. P. (1999). *The Investigative anthology*. John E, Reid and Associates Inc.
- Knapp, M. L., Hart, R. P., & Dennis, H. S. (1974). An exploration of deception as a communication construc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 15-29.
- Newman, M. L., Pennebaker, J. W., Berry, D. S., & Richards, J. M. (2003). Lying words: predicting deception from linguistic sty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665-675.
- Pennebaker, J. W., & King, L. A. (1999). Linguistic styles: language use as an individual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296-1312.
- Pennebaker, J. W., Francis, M. E., & Booth, R. J. (2001).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LIWC): LIWC*. Computerized Text Analysis Program. Mahwah, NJ: Erlbaum.
- Pennebaker, J. W., Graybeal, A. (2001). Patterns of natural language use: disclosure, personality, and social intergra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90-93.
- Rabon, D. (1996). *Investigative discourse analysis*.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 Rudacille, W. C. (1994). *Identifying lies in disguise*. Dubuque, IO: Kendall/Hunt.
- Rude, S. S., Gortner, E.M., & Pennebaker, J. W. (2004). Language use of depressed and depression-vulnerable college students. *Cognition and Emotion*. 18(8), 1121-1133.
- Sapir, A. (1987). *Scientific Content Analysis(SCAN)*. Phoenix, Arizona: Laboratory of Scientific Interrogation.
- Sapir, A. (2000). *The L.S.I course on scientific content analysis: Workshop book*. Phoenix, Arizona: Laboratory of Scientific Interrogation.
- Smith, N. (2001). Reading between the lines: An evaluation of the scientific content analysis technique(SCAN). *Police Research Series Paper* 135.

- Vrij, A. (2000). *Detecting lies and deceit: The psychology of ly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 practice*, John Wiley and Sons, Chichester.
- Vrij, A., Edward, K., Roberts, K. P., & Bull, R . (2000). Detecting deceit via analysis of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4(4), 239-263.
- Vrij, A. (2004). Why professionals fail to catch liars and how they can improve, *Legal and Criminal Psychology*, 9, 159 - 181.

## Linguist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eceptive Statement in Korean

Ok Yeong Moon   Si Up Kim   Woo Byeong Jeon   Beom Jun Kim

Kyonggi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monstrate linguist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deceptive statements written in Korean by comparing true statement with deceptive one that was written to minimize one's own responsibility for assault experience. For this aim, 112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First, the students wrote down true statement about one's own assault experience, and a week later, they wrote down deceptive statement. When they wrote down deceptive statement, they imagined a situation where their assault experience was made public and they wanted to avoid liability or blame from their acquaintances. Sixty three paired statements were analyzed with K-LIWC program. Then, the results demonstrated linguist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hen people lie to minimiz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assault experience. In addition, summ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figure out linguist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deceptive statem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ost linguistic variable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re increased in prologue and conclusion of the deceptive statements by adding sentences to avoid one's responsibilities. In conclusion, import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 Korean statement, Deceptive statemen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Linguistic characteristics.*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4월 13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5월 22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5월 24일